

“표준감사시간 제정안”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- 2019년 2월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-

1. 종합의견

- 한국공인회계사회(이하 한공회)의 ‘표준감사시간 제정안(이하 제정안)’은 근거법률의 수권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위헌·위법 소지
 - 표준감사시간을 정함에 있어 근거법률인 「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이하 외부감사법)」은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제정안은 강행규정으로 규정
 - 이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음

<외부감사법 및 표준감사시간 제정안>

외부감사법	표준감사시간 제정안
제16조의2(표준 감사시간)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<u>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외부감사법”이라 한다) 제16조2 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① 외부감사법에 따른 <u>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.</u>

- 표준감사시간을 위임입법 범위 내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의 성격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고, 명칭도 ‘표준감사시간 모범기준’으로 변경해야 함

- 해당 기업의 업종, 규모 및 감사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감사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‘가이드’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, ‘가이드라인’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 등 관련 연구용역 수행 결과 및 업계·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함

2. 조항별 의견

표준감사시간 제정안	증권기업계 의견
표준감사시간 제정안	(명칭변경) ‘표준감사시간 모범기준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외부감사법”이라 한다) 제16조2 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<u>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정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▶ 표준감사시간이 ‘최소감사시간’ 내지 동 ‘표준감사시간 준수’가 법상 의무사항으로 해석될 소지 →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수권범위를 벗어난 것 제1조(목적) 모범기준은 감사인이 투입하는 표준감사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①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후략)	제2조 삭제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표준감사시간”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절한 감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말한다. (후략)	▶ 외감법은 한공회로 하여금 ‘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한공회는 임의대로 해석하여 ‘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’으로 왜곡
제6조(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) ① 회사와 감사인은 <u>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</u>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표준감사시간 적합도심사를	▶ 외감법은 한공회에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만 수권 ▶ 표준감사시간은 임의규정이므로 한공회가 적합도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외감법 취지에 위배 ▶ 적합도심사를 규정하게 되면 한공회의

표준감사시간 제정안	중견기업계 의견
<p>신청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 적합도심사 신청 이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사가 적합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적합도심사위원회를 둔다. 표준감사시간적합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.</p>	<p>객관성·중립성 문제로 권한 남용 우려</p>
<p>제8조(문서화) ① 감사인은 개별 회사의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와 산정결과를 문서화한다.</p> <p>② 실제 투입감사시간과 이 규정에 따라 산정된 표준감사시간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차이내역과 사유를 문서화한다.</p>	<p>▶ 표준감사시간은 지침(가이드라인)에 해당하므로 한공회가 이를 심사하기 위한 문서화가 요구될 수 없음.</p> <p>▶ 또한 금융위는 회사에 대해 ‘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한 미달시 감사인 지정’이라는 제재조항을 두고 있는 바, 한공회가 감사인에 대해 회칙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시 패널티를 부여할 경우 회사에 대해 사실상 표준감사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고, 이 경우 표준감사시간의 성격이 왜곡될 것임</p>
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2조(그룹별 적용례) 그룹 7, 그룹 8, 그룹 9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의 시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. 각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율은 다음과 같다. (후략)</p>	<p>▶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수권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‘시행일’과 ‘그룹별 적용례’ 등을 정하는 것 역시 법에서 부여한 수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</p>
<p>[별표1]~[별표10]</p>	<p>▶ [별표1]~[별표9]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 및 [별표10] 그룹별 기준숙련도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</p>